데스크시각

김 미 은

왜 또 '님을 위한 행진곡' 일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다. 옆에 자리한 일행도 마찬가지 인듯했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이 웃을 때마다 '음, 이건 아닌데' 하며 속으로 불편한 심기를 억눌렀다.

하지만 2시간 후. 커튼콜 때 우리는 기립박수를 쳤다. 공연 후에도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지인 때문에 객석에 한참을 앉아있어야 했다. "사람을 완전 무장해제시켜 버리네." 지인이 내뱉은 말이었다. 5월초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연극 '푸르른 날에'를 관람했을 때의 모습이다.

우스꽝스러웠던 '오월 연극'

처음에 안절부절이었던 건 이 작품이 '5월 광주'를 다루고 있어서였다. 5월 소재 작품에서 광주사람은 객관적이기 어렵다. 광주에서 볼 때도 그러한데 하물며 서울에서, 그것도 '5월 광주'를 모를 것 같은 20대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극을 보자니 좌불안석이었다. 관객들의 반응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목포 출신 정경진씨의 희곡인 '푸르른 날에'는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연출가의 말을 읽어보니 '명랑하게 과장된 통속극', '21세기 신개념 신파극'인 작품에 대해 초연 당시 '장난이 지나치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들도 있었던 듯하다.

물론 초반에는 지나친 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장난'이 결코 장난에 머물지 않았다. 처음에 웃기에 바빴던 관객들은 점점 작품에 몰입됐다. 배우들이 김남주의 시 '학살'을 낭송할 때, 객석에서는 어떤 흥분이 감지됐고,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흐느낌이 가득했다.

개인적으로 5월을 이야기하는 광주산(産) 작품들의 획일성에 지쳐있던 터라 '5월을 이렇게도 풀어내는구나'하는 신선함을 느꼈다.

연극을 보고 난 며칠 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제작하는 브랜드 공연 오디션 공고를 보고 다시 답답해졌다. 2억여 원이 투입되는 작품의 제목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 왜 여전히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여야 하는 걸까'였다. 물론 제목만 보고 작품 내용을 가늠하는 게 섣부른 판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제목'은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솔직히 지난해 문화재단이 수억 원을 들여 제작한 '쟈스민 광주'의 경직성과 뻔함이 연상돼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닌가 괜한 걱정부터 들었다.

5월 한복판에서 오월 문화를 생각한다. 이제는 광주 사람들 가슴에서 무거운 돌 하나쯤은 내려두면 어떨까. 무엇보다 오월 문화를 생산해내는 예술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품을 향유하는 시민들도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물들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면 좋겠다.

얼마 전 '푸르른 날에'의 희곡을 구해 읽었었다. 희곡과 연극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고선웅씨가 희곡을 해체하고, 연출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었다. 장담컨데, 광주 연출가가 이 희곡을 받아들었다면 이런 식의 '가벼운' 해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필자가 '푸르른 날에'의 초반 가벼움이 못내 불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극단 토박이와 신명의 5월극은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게 맞다. 반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5월 작품은 완전한 새로움으로 무장해야 한다.

발칙한 도발과 상상 필요해

물론, '푸르른 날에'가 오월 작품의 '완성형'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도 그같은 발칙한 도발과 허를 찌르는 상상에 과감히 뛰어드는 게 필요하다.

6월, 관객들을 만날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런 새로운 창조의 기운 안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사가 80년 5·18 현장이었던 금남로에 있다보니 해마다 가까이서 5월을 경험한다. 올해는 조금 다른 기운을 느꼈다.

금남로에는 정치적 구호 대신 1988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소년이 쓴 시 '목련이 진들'이 내걸렸다. 길을 걷다가, 14층 사무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며 하루에도 몇 차례 시를 읽는다. 지금은 이 소년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5월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푸르른 날에'는 20일까지 공연된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사 설

진보당 '몰염치'에 지역민 배신감 크다

통합진보당 부정·폭력사태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막가파식 갈등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 연말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몰염치' 진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혁신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14일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부문 비례대표 14명의 사퇴를 의결했다. 하지만 당권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4·11총선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민들로선 이런 진흙탕 싸움에 배신감마저 느낀다. 당시 광주·전남의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18.6%, 14.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지역구 당선자 7명 중 광주 오병윤, 순천 김선동 의원 등 2명이 포함됐다. 지역적 기반도 탄탄하다. 진보당 진성당원 5만 명 가운데 광주·전남은 80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지역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면서 지난 10년간 지역에 뿌리 내렸던 진보정당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지역 진보당 진영이 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진보당은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갈등을 속히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비대위는 사태 수습과 함께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당이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당권파도 사태 수습에 협력, 뼈를 깎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분열이 계속된다면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이 진보당을 외면할 것이다.

공무원이 혈세 퍼주고 해외여행까지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를 퍼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가 하면 해외관광까지 다녀왔다니 이런 파렴치한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 건설공사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 공무원 A씨는 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독을 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려줬다.

나주시 투자유치 담당자도 한 금융자문업체에 자금조달 용역을 맡기면서 자문료로 최대 12억5000만 원 더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친구와 함께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다고 한다.

또 무안군 공무원 C씨 등 3명은 자격이 없는 한 복지회와 24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계약서로 대체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골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해당 기관에선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지만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와 가혹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엄격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뇌물이 독약이라는 인식부터 심어야 한다. 사업 및 공사 발주, 감독 과정의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지위 고하와 액수 과다'에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하고,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강도 높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울 뿐이다.

은펜칼럼

딸아이의 늦잠을 바라보며

김 창 균

아침이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깨우는 일이 쉽지 않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자고 달래지만, 아이와 실랑이하다 보면 자연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가 많다. 그런 날이면 아이의 뒷모습이 괜스레 마음에 걸린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춘기에 들어선 증거라고 한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점차 생체 시계가 밤이라고 간주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밤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늦어져서 늦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다. 10대 수면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 브라운 대학의 카스카돈(M. Carskadon) 교수의 연구 결과다.

수면은 정서의 안정, 인지 능력 향상 등 고차원적인 정신 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청소년기의 뇌는 여느 시기보다도 빠르게 발달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다른 경험과 정보 처리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카스카돈 교수는 청소년기의 적정 수면시간이 9시간 30분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도 부족하여,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가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체리듬이 올빼미 같다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은 어떨까. 미국의 세인트 조지 하이스쿨에서는 등교 시간을 30분 늦춘 결과 낮 동안의 졸림증과 낮잠 욕구가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 식사 횟수도 늘었다고 한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을 10시로 늦춘 결과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CSC)의 평균 성적이 대폭 상승하고, 장기 결석도 27%나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며칠 전 출근길에 들은 라디오 방송의 한 구절이 자꾸 머리에 맴돈다. 방송에서는 농사꾼이 되어 생명공동체 운동을 벌인 윤구병 선생의 '잡초는 없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달력상으로 몇 월 며칠 정도에 콩을 심을지를 고민하며 동네 할머니께 "콩은 언제 심어요?"하고 여쭈었더니, "으응, 올콩은 감꽃 필 때 심고, 메주콩은 감꽃이 질 때 심는 거여." 하시더란 것이다.

자연의 때에 따라 콩을 가꾸듯이, 아이도 자연의 흐름에 맞도록 키울 수는 없을까. 인간이 만든 시간의 잣대에 아이를 옥죄고, 부모의 기대 욕구에 맞춰 아이의 성장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윤구병 선생은 심지 않은 망초, 씀바귀, 쇠비름, 광대나물 따위를 '잡초'로만 알고 모두 뽑아 버렸는데, 실제로는 소중한 약초이거나 나물이었다고 했다. 아이를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과 잡초를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

"우리는 너무 경제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어서 가끔은 더 큰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 더 큰 것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윤구병 선생이 제도 교육에 의심을 보내고 실험학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던진 한마디였다. 교육에 대한 근원적 성찰 없이 아이를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대학을 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침잠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딸아이가 신록의 5월에도 꿈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정원디자이너'에게 샘물을 떠준 사람들

임 희 진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정원, 영국 첼시꽃박람회(Chelsea Flower Show)는 런던템스강변 첼시에서 1827년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빼고 180여 년 동안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정원·원예 박람회로, 매년 5월 하순 단 5일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행사가 유명한 이유는 행사개막 18개월 전부터 참가 '기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엄격하게 참가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원예 산업 동향과 다양한 품종의 꽃과 나무를 접할 수 있고, 전문가는 물론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아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2001년과 2002년에 직접 작품을 출품해 모두 은메달을 받았다. 한정된 공간 때문에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티켓은 매년 조기에 매진된다. 또한 행사가 시작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한 각국의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관해 정원 디자이너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이런 세계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에 지난해 우리 지역 출신인 무명의 황지해 작가가 '해우소 가는 길'을 출품, '아티즌 가든' 부문 최고상과 금메달을 받았다. 아무도 예측 못 한 쾌거로 세계적인 권위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룬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 준 것이었다. 작가의 '해우소 가는 길'은 근심과 걱정을 털고 마음을 비우는 곳이라는 불교 개념으로 한국 전통 화장실 문화가 갖는 철학을 정원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왕복 비행기표 값을 걱정하면서 오직 투지 하나로 도전했다는 그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전통 정원문화의 아름다움과 철학이 세계 정원문화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대형 정원 부문에 정식 초청을 받았다. 그는 우선 영국 현지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모금과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을 받아 자비로 지난달 초부터 작품 설치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작품 제작비의 후원 소식이 없어 점점 다가오는 출품일자에 속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지역 언론사에서 세상에 알렸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는 문화와 인권의 도시에서 배출한 우리 지역의 젊은 작가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이틀, 초읽기에 들어간 출품 마감 일자를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 같이 애태우며 후원자를 찾아 뛰고 있었다.

그때 선뜻 우리 지역 기업 남광건설(김대기 회장)과 호반건설(김상렬 회장)이 쾌히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예향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힘이 따뜻한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세계적인 정원박람회에 다시 한 번 한국의 예술혼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마르고 각박한 사회에서 떠준 샘물이어서 더욱 값지고 훈훈하여 같이 마음 졸였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고 싶다.

올해 초 그의 작은 연구실에서 만난 작가의 손은 그야말로 거칠고 옹이가 박혀있었다. 그리고 미치도록 해 보고 싶은 작품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그가 무슨 수로 그 큰 무대에 다시 도전을 한단 말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는 도전을 했고, 결국 해냈다. 그의 열정과 의지에 시원한 샘물을 떠준 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젊은 디자이너가 세계를 무대로 펼쳐보일 그의 앞날에 박수를 보낸다.

'고요한 시간-디엠제트(DMZ) 금지된 화원'은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올해 첼시 꽃박람회에 선보일 쇼가든(대형정원)부문 작품이다. 전쟁의 상흔을 이기고 원시의 자연과 생명력을 회복한 비무장지대 천혜의 식생을 배경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의 상징 경계초소(생태환경감시탑)와 덩굴식물로 표현된 군사분계선, 철책, 참호 등이 설치되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의 이름이 점자로 새겨진 군번줄로 가로 2.5m, 세로 1.8m의 '메모리얼페어'가 함께 꾸며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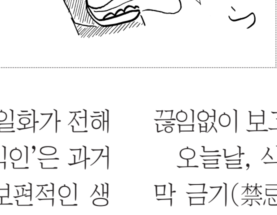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런던올림픽(7월 27일)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인 Diamond Jubilee(6월 2일~6월 4일)가 맞물려 역사상 최고의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조성하는 '여왕 가든' 옆자리 '트라이앵글사이트'에 배정돼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후원이 결정된 후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며 "고향 분들이 선뜻 도움을 주셔서 한국과 예향 광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돼 너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그는 'DMZ 정원'을 전시할 것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진다.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無 等 鼓

食人의 기억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33일간의 항해 끝에 카리브해의 바하마제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남자 포로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한 카리브인의 집에 들어간 그는 천장 여기저기에 매달린 해골들과, 사람 뼈로 가득 찬 광주리들을 보고 이를 카리발즈(Caribales)라고 불렀다. 나중에 카니발즈(Canibales)로 발음된 이 단어는 오늘날 식인풍습을 가리키는 명칭의 어원이 됐다.

당시 식인풍습에 대한 유럽인의 거부감에 놀란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원주민들이 "그렇다면, 바다의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인'은 과거 몇몇 부족, 또는 국가에서 보편적인 생활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1779년 발렌타인데이에 하와이에 들렀던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은 '식인풍습에 희생된 가장 유명한 인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원주민들은 쿡 선장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뒤 '먹어치웠다.'

역사적으로 보면 식인풍습의 동기는 대부분 기근이나 주술, 종교적인 이유 또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사디스트를 비롯해 변태적인 미치광이들도 식인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비주류일 뿐이다.

하지만 일부 인류·심리학자들은 '식인'이 인류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또 다른 본성이자 욕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범인들이 살인의 전·후 과정에서 의도적인 식인을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식인은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금기(禁忌)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체를 갈아 만든 '인육캡슐'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를 지탱하는 금기가 해체되는 것만 같아 불안하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저탄소 녹색성장 위해 산림농가도 직불제 실시하자

나무 심는 계절이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림이 220만ha나 된다는데 이 숲을 제대로 가꾸면 지구온난화 물질인 탄소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이만한 역할을 해주는 산림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필요가 없다.

또 숲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소양강댐 3개의 저수량과 맞먹는 60억t이나 된다고 한다. 제대로 가꿔진 숲이 주는 혜택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연간 50조 원이 넘고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니 그 효과가 대단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를 심기만 할 게 아니라 베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즉 잡목만 빽빽이 우거진 산에는 햇빛이 토양에 들어올 틈이 없어 나뭇가지와 토양이 함께 죽는다. 그래서 이런 산에는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 적절히 솎아줘야 한다. 그래야 올곧은 재목을 길러낼 수 있으므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지금 농업분야에는 논농사 직불제라는 게 있다. 이것은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 같은걸 덜 쓰는 조건으로 환경농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출이 줄어드는 만큼을 감안해 일정액의 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런 직불제를 산림농가에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나무를 기르는 일은 거의 50년이 지나야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조급증과 당장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50년 후에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산림육성에는 투자를 잘 안해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이면서도 산림자원은 아직도 빈약하다.

따라서 장기 산림투자 농가에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산림농가 직불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방안이며, 우리 산림을 조금이라도 푸르게 하는 방법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